

“안봤는데요” 오리발댄 ‘맨눈단속’ 경찰 속수무책

운전중 DMB 시청 단속 한달째

광주·전남 적발 전무 ‘개점휴업’ 상태...시기 미루기도 경찰 “휴대전화·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받아서 단속”

#. 지난 31일 김모(43)씨는 택시를 타고 출근하다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으로 아침 드라마를 보며 운전하는 택시기사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많은 차량이 줄지어 움직이는 출근길에 사고라도 날까 불안함도 적지 않았다.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영상장치를 보며 운전하는 ‘무개념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움직이는 차 안에서 DMB를 보는 것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다. 경찰은 단속을 위한 ‘묘수’가 없어 애초 계획했던 단속 시기마저 미루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31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DMB와 스마트폰 등 영상

장치를 사용한 운전자에게 벌점·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단속된 차량은 전무하다.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 중 DMB 등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벌금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 경찰은 이같은 규정에 따라 2월 말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 뒤

3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으로 얼마나 단속됐는지, 단속자들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전남경찰도 비슷하다. 법이 시행된 뒤에도 뚜렷한 단속 방안·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홍보 현수막을 걸고 계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별도의 단속장비 없이 현장에서 경찰관이 눈으로 보고 단속할 수밖에 없지만 움직이는 차량 운전자의 ‘DMB’ 시청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여건 탓에 단속 시기를 5월 이후로 미루고 있어서다. 경찰은

당장, 효율적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호대기나 정차중일 때는 단속에서 제외되는데다, 차량 유리를 짙게 코팅한 차량이 많은 점, 증거물이 없어 경찰관이 정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끈 뒤 ‘보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운전자들과의 실랑이 등을 감안한 단속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격 단속기간에는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등으로 찍힌 운전중 영상기기 시청 동영상을 제보받아 단속할 계획”이라며 “집중 단속 기간에는 사고 다발지역이나 통행량이 몰리는 곳에 직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학생에 돈 빌린 교수

전남대, 중징계 요구

전남대는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 사용한 B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남대는 B교수와 학생간 금전 거래에 대한 소문이 나돌자 지난달 진상 조사위원회를 열어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또 B교수를 징계위원회에서 넘겨 중징계해줄 것을 요구했다. B교수가 맡았던 올 1학기 강의는 폐강되거나 다른 교수로 대체됐다.

B교수는 이번 학기 수강 신청학생들에게 3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지난해에도 한 대학원생으로부터 600여만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졌다며 학교측의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그중 일부를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5·18 아카이브 건립 공사 한창
탈바꿈한다.

지난 31일 광주시 동구 옛 카톨릭센터에 5·18 기록물 등 관련자료 기록·전시공간으로 사용될 5·18 아카이브 건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5·18 아카이브 건물은 전시공간과 영상관 등으로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사고 성적제한 규정 폐지 논란

장휘국 교육감 ‘상위 30% 이내’ 재검토 지시...송원고·송덕고 ‘선발권 달라’

광주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학 전형의 상위 30% 이내 성적 제한 규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이 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자사고들은 ‘성적 제한은 완화하더라도 자기주도형 선발’을 원하고 있다.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의 자사고는 송원고와 송원고 2곳이다. 이들 자사고는 매년 300여명의 신입생을 뽑으면서 성적 제한 규정을 적용해 상위 30% 이내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자사고 신입생을 전원

추천으로 뽑도록 했다가 자사고의 반발에 부딪혀 성적 제한은 없었지만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자사고 학교별로 이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원고는 올해, 송원고 내년에 재지정을 위한 운영평가가 예정돼 있어 빠르면 내년과 내후년 신입생부터는 성적제한 규정이 사라지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자사고의 성적제한 30%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규정 검토를 지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장 성적제한 규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자사고 평가작업이 완료되면 학교별로 이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자율화

만들면 이에 따르게 돼 있다”며 “일반고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성적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 추세여서 해당 학교와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원고는 “지역의 우수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면서 “이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자기주도형 전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고도 “성적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면접을 통한 선발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열기자 jwpark@kwangju.co.kr

해돋이 06시 20분
해질 18시 53분

달돋이 07시 03분
달질 20시 34분

오늘 날씨

미세먼지 '보통'

안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8/23°C
목포	맑음	7/18°C
여수	맑음	12/19°C
나주	맑음	6/23°C
완도	맑음	7/19°C
구례	맑음	7/23°C
강진	맑음	5/20°C
해남	맑음	4/21°C
장흥	맑음	5/20°C
순천	맑음	11/22°C
영광	맑음	5/21°C
영도	맑음	5/20°C
전주	맑음	6/23°C
군산	맑음	8/22°C
남원	맑음	4/23°C
흑산도	맑음	8/15°C

구분	종형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풍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5m		관심	보통

구분	종형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목포 03:08	08:18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0m	여수 10:09	03:50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9/23	10/19	7/17	7/18	6/18	7/19

신학기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 비상

광주·전남지역 학교 불거리·A형 인플루엔자 등 유행

신학기를 맞아 광주·전남지역 학교에 불거리와 A형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31일 광주·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전남 일선학교에 불거리 환자로 신고된 학생은 17개교 30명에 이른다. 광주가 5개교 16명, 전남이 12개교 14명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이들 만에 서구·남구지역을 중심으로 16명이 발병해 비상이 걸렸다. 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된 통계로, 아직 발생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학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불거리는 전염성이 강해 NEIS에 곧바로 올라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 뒤늦게 올린 경우가 있어 통계가 지연됐다”며 “추진 여부를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불거리는 이하선(귀밀샘)을 비롯

해 전신을 침범할 수 있는 급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고열과 두통·구토·근육통·식욕부진 등이 동반된다. 감염자 대부분은 자연치유 되지만 뇌수막염·폐렴·청력장애·심근염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발병 1주일 전부터 발병 후 9일까지 전파력이 강해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 잠복기가 14~18일이나 돼 조기 차단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불거리는 예방접종을 하면 85%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제때 백신을 접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주기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사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A형 인플루엔자(독감)도 유행하고 있다. 올 들어 광주에서 23개교 40명이, 전남에서 347명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 지난해 1년동안 전남에서 42명이 감염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상태다.

/박정열기자 jwpark@kwangju.co.kr

since 1952 **62** 광주일보 창사 6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시민결정으로! 현장속으로!

시민의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